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5일 (음력 11월 29일) 월요일

## 전남도, 농촌관광객 110만명 유치 목표

### 농촌체험휴양마을 135곳 활성화 사업 올해 4억6000만원 지원

### 프로그램 개발·노후시설 개보수 등 14개 사업...19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올 한 해 농촌관광객 11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관광객 110만 명 유치, 농의소득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계절 및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편의 시설 개보수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양과 체험, 자연 속 치유를 원하는 도시민들이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에서 농촌의 아름다움과 고향의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억6000만 원을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노후 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 지원을 바라는 마을은 오는 19일까지 체험휴양마을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한 해 동안 ▲한우 접목 요리개발, 장류 음식개발, 주민강사 양성 등 프로그램 개발 3개소 ▲소비자 초청 체험, 사계절 드론 촬영 동영상제작, 편의 축제 참가 고등배기 홍보 등 홍보비

지원 3개소 ▲화장실신축, 시설 보수, 편의 시설 확충 등 시설개보수 확충 10개소를 지원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3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8만 명이 전남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다녀갔으며, 이로 인해 100억 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3)나 (사)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070-7722-2475)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 국정농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0일 이라에미리연합(UAE) 원전사업 수주와 관련된 논란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한발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강인데 지금 물러났다'고 말했다. 노회찬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자기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확인한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영 전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UAE와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해 '0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다. 대통령은 모르시죠.'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차로사진=뉴스스

## 별교농협, 미국행 골드키위 울 첫 상차식

### 3년 연속 우수출 성과...올해 수출물량 총 100톤으로 확대

별교농협(조합장 김기순)은 12일 조합 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제시골드키위의 올해 미국 첫 수출 상차식을 갖고 해외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강복수 보성군의회 의장, 안성열 농협보성군지부장, 강원석 보성군 유통유통예과장, 별교농협 골드키위 수출신도조직원 참여 농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상차식에서는 6,500만원 상당의 키위 13톤 물량이 상차됐다.

별교농협은 농가의 수출공신출하회 조

직, 농협보성군연합사업단 NH무역 등과 함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나서 3년연속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아시아에 총 178톤, 7억3,000만원의 키위수출 성과를 거뒀다.

김기순 조합장은 "보성산 골드키위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수출전망이 대단히 밝다"며 "금년도에는 수출물량을 총 100톤(5억 원 상당)으로 확대함으로써 키위 재배농가의 출하처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인규일 기자



(왼쪽 4번째부터)안성열 농협보성군지부장, 강복수 보성군의회장, 김기순 별교농협조합장, 강원석 보성군유통유통예과장

## 광주, 화재 건수·재산피해 줄고 인명피해 늘었다

### 시 소방안전본부 "예방활동·대책 통해 생명·재산 보호 힘쓸 것"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923건의 화재가 발생해 36명의 인명 피해와 33억7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3.45%(33건), 재산피해는 10.5%(3억9800여만 원) 감소한 반면 사상자는 20%(6명)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8.6%(54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 19.1(177건)%, 기계 7.4%(69건) 순이다.

부주의의 화재는 유형별로 보면 담배꽂초 방치가 36.5%(198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중 17.5%(95건),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가 각각 13.3%(72건)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27.9%(258건)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외 14.4%(133건), 자동차 10.8%(100건), 음식점 10.4%(96건), 일상서비스와 산업시설 6.6%(61건) 등이다.

특히,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반면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부상자만 11명 발생해 주거용 건물 화재 인

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이 이면도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주택화재 예방 홍보, 취약계층 대상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매년 화재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사상자는 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사망자 모두 안타깝게도 소중한 보급지라던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화재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